

주요 내용

■ 엔 국제화의 가능성 진단 ■

추진 배경

- (아시아 금융위기)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역내 독자적인 결제 수단 필요
- (유로화의 출범) 유로화의 출범 등 국제통화체제의 다극화에 따라 엔화의 역할이 강조됨
- (일본의 금융 빅뱅) 일본 금융시장 개방으로 엔화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환율 안정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제기됨

엔 국제화 가능성

- 일본이 금융·자본 시장 환경을 정비해 감에 따라 엔화의 국제적 비중은 점차 확대될 것임
- 그렇지만 엔화가 전세계 무역 및 자본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점, 일본 자체의 대외거래에 있어서도 엔화 결제 비중이 낮은 점(수출: 36.0%, 수입: 22.7%) 등을 감안할 때, 기축 통화로서의 엔의 국제화는 요원함

시사점

- 엔화의 국제적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이므로, 달러 환율 변동에 따르는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유로화와 더불어 엔화 보유도 적절히 늘려갈 필요가 있음

엔 국제화의 가능성 진단

정 오 영 oyjoung@hri.co.kr ☎ 724-4026

추진 배경

- (아시아 금융 위기 발생) 아시아 금융 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이 지역 내 국가들이 달러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확산됨
 - 따라서 아시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역내 독자적인 결제 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됨
- (유로화의 출범) 99년 1월 유로화의 출범으로 국제 통화체제에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면서 기축 통화로서 엔의 역할이 세삼 강조되고 있음
 - 달러에 대항하는 새로운 기축 통화인 유로화가 탄생함으로써 엔이 독자적인 기축 통화의 지위를 추구하는 데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됨
- (일본의 금융 빅뱅) 일본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외환 거래가 자유화됨으로서 국제 경제의 동향에 따라 엔화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하는 시대를 맞게됨
 - 이로 인하여 엔화 가치의 안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

엔 거래 현황

- 실물 경제의 규모에 비해 엔 거래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임
 -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각국의 비중을 보면 96년 현재 GDP에서 일본 17.2%, 미국 25.4%, EU 29.5%, 무역에서 일본 7.1%, 미국 13.5%, EU 37.5%를 기록함
 - 96년도 현재 세계 각국의 금을 제외한 외환보유고 중 6.0%만이 엔으로 보유하고 있으며, 달러는 58.9%, EU 역내 통화는 24.5%임
 - 외환 거래에 있어서도 95년 4월 현재 엔 12.0%, 달러 41.5%, EU 역내 통화

35.0%를 차지함

- 아래 <표>에서 보듯이 일본 자체의 대외거래에서도 엔의 비중(수출 36.0%, 수입: 22.7%)은 높지 않음

< 국제 무역의 결제 통화 (1995년) >

(단위: %)

		달러	엔	마르크	프랑	파운드	리라	길다	기타
수출	미 국	92.0	2.4	0.9	0.6	0.9	0.3	0.6	2.3
	일 본	52.2	36.0	2.4	0.7	1.4	0.3	0.9	5.4
	독 일	9.5	0.9	74.7	3.2	2.6	2.2	1.3	5.6
	프랑스	18.6	1.0	10.5	51.7	4.2	3.1	1.5	9.4
	영 국	23.1	1.1	4.0	3.1	61.6	1.6	2.3	3.0
	이탈리아	21.0	0.6	18.0	8.0	3.5	40.0	1.5	7.4
	네덜란드	20.6	0.6	18.5	4.5	4.1	1.5	43.8	6.4
수입	미 국	80.7	2.8	3.8	0.9	1.7	0.8	0.3	9.0
	일 본	70.2	22.7	2.7	1.0	1.3	0.8	0.3	1.0
	독 일	19.5	1.4	51.5	2.5	1.7	1.0	0.9	21.5
	프랑스	23.1	1.0	10.1	48.5	2.9	3.7	1.4	9.3
	영 국	24.6	2.0	11.1	4.6	43.0	1.8	2.5	10.7
	이탈리아	29.0	1.0	14.0	7.0	3.8	37.0	2.4	5.8
	네델란드	25.4	1.3	17.5	2.8	3.4	1.0	42.8	5.8

자료 : 世界經濟研究協會, 「世界經濟評論」, 1998. 12.

엔 국제화 가능성 진단

- 엔 국제화를 위해서는 우선 국내적으로 건전한 거시 경제 운영이 요구됨
 - 현재 일본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, 금융 시스템이 재건되어야 하고 경제가 안정 성장 궤도에 복귀함으로써 일본 경제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 급선무
 - 엔 국제화의 진전 여부는 결국 일본 경제의 신뢰도에 가장 크게 좌우될 것이란 점에서 일본 경제가 미국, 유럽에 뒤지지 않는 활기를 찾을 때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임

- 자본의 조달, 운용면에서 엔화 이용의 편리성이 향상되어야 함
 - 아직도 동경 자본시장은 구미에 비해 발달되어 있지 못하며, 불리한 세제나 절차상의 규제 등 많은 제도적 개선 과제를 안고 있음
 - 특히 국외 거주자들이 엔을 이용하는 데 따른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음

-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축 통화로서의 엔의 국제화는 아직도 요원한 목표라고 판단됨
 - 그러나 향후 일본이 금융·자본시장 등의 환경을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 엔의 국제적인 비중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임

< 국제 통화로서 달러·유러·엔의 조건 >

	경제 규모	무역의존도	외환 규제	자본시장 성숙도	경제의 안정성	
					국(역)내	대외
달 러	○	○	○	○	○	×
유 러	○	○	○	△	○ or △	○
엔	△	△	△	△	△	○

자료 : 世界經濟研究協會, 「世界經濟評論」, 1998. 7.

주 : ○ 적합, △ 보통, × 부적합.

시사점

- ‘엔의 국제화’ 라는 개념은 엔의 활용 비중을 높이는 데서부터 엔이 달러와 유로에 맞먹는 기축 통화가 된다는 데 이르기까지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내포함

- 국제 금융시장에서 엔화의 비중이 증대되면 달러화, 유로화 외에 엔화의 보유를 늘림으로써 투자, 자금 운용에 따르는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이점이 있음
 - 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향후 유로화와 더불어 엔화 보유를 적절한 수준으로 늘려 갈 필요가 있음